쉬어 가는 코너, 함께 풀어 봐요!

Q1. 아프리카코끼리가 10㎞ 밖에 있는 밀렵꾼을 알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빈칸 채우기)
A. (발)의 (진동)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한다!

아프리카코끼리는 발로 땅을 눌러 전달된 진동을 통해 대화한다.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 저주파를 이용해 먹이가 있는 곳과 위험 요소 등을 다른 무리와 공유하는 것.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땅을 이용하는 효과적인 이 대화법은 다른 육상 동물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잡음이 없어 소통에 유리하다. 가령 뒷발을 꾹 눌러서 생기는 진동은 '편안하다', 발가락을 꾹 누르며 걸으면 '화가 났다'는 의미다.

Q2. 타고난 전사, 수사자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은?
A. (큰 얼굴) 때문에 (은폐)할 수 없다.

수사자는 평균 몸길이 2.5m에 큰 머리를 가지고 있어 사냥에 불리하다. 이런 점 때문에 초원에서 사냥감에 발각될 확률이 높아 수사자 대신 암사자가 사냥을 주로 맡는다. 또한, 머리가 무거워 빠른 속도로 뛰지 못하고 풍성한 갈기 때문에 조금만 뛰어도 체온이 급상승한다. 이 때문에 수사자들은 주로 더운 아프리카 햇볕 아래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다.

Q3. 짝짓기 상대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암컷 하이에나가 하는 행동은?
A. (소변)으로 (정자)를 배출한다.

하이에나는 암수 모두 생식기 모양이 같아 외관상 구분하기 어렵다. 외부로 돌출된 생식기 때문에 이들의 짝짓기는 암컷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암컷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자신의 생식기를 몸 안으로 넣어 짝짓기할 수 있다. 한편 하이에나 암컷은 교미와 출산, 소변을 한 통로로 이용하는 독특한 신체 구조를 지니고 있어 새끼들의 사산율이 높다. 또한 이 때문에 암컷은 우수한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소변으로 정자를 배출할지 선택할 수 있다.

짤방 퀴즈 예제

Q1. 특유의 친화력을 지닌 쿼카가 가진 독특한 별명은?
A. 웃으면서 다가오는 벌금!

호주 로트네스트섬에서만 볼 수 있는 쿼카는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애교가 많아 사람들과 셀카를 많이 찍는 것으로 유명한 쿼카에게는 '웃으면서 다가오는 벌금'이라는 독특한 별명도 함께 존재한다. 이유인즉슨, 쿼카는 서식지 파괴로 인한 '멸종 위기 취약' 동물로 호주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어, 쿼카에게 먹이를 주거나 손으로 만질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시의성 퀴즈 예제

Q1. 유칼립투스 잎의 독성분을 해독하기 위해 새끼 코알라가 먹는 독특한 이유식의 정체는?
A. 새끼 코알라는 엄마의 배설물을 먹어 장내 미생물을 섭취한다.

젖을 뗀 새끼 코알라는 주식인 유칼립투스 잎을 해독하기 위해 엄마의 배설물을 먹는다. 유칼립투스 잎을 해독할 능력이 없는 새끼 코알라는 이를 섭취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2019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장장 6개월간 호주를 뒤덮었던 산불로 인해 유칼립투스 숲 80%가 사라졌다. 코알라는 스스로 종을 유지할 수 없는 '기능적 멸종 상태'에 접어들었고, 이에 호주 코알라 보호 단체에서는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가족을 잃은 코알라와 연계해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Q2. 멸종 상태에 이른 토종 여우 복원에 도움을 준 직업은?
A. 개장수

토종 여우는 1960년대 무자비한 취약 살포로 사실상 멸종 상태에 이르며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 시작된 '여우 복원 프로젝트'에 전문가들이 모여 힘을 썼지만, 까다로운 여우의 습성 탓에 번식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한 '개장수'가 토종 여우 복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러시아에서 몰래 들여온 붉은여우 한 쌍이 낳은 새끼로 번식에 성공했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는 관리비에 벌금을 낼 각오로 자진 신고했다. 연구진은 개장수가 기른 여우 개체를 기증받아 번식 연구를 계속했고, 현재 복원 사업을 통해 50여 마리의 여우가 야생에 살고 있다. 또 작년 5월에는 야생에서 태어난 새끼들도 포착됐다.